

유란시아서

<< [제 82 편](#) | [부분](#) | [내용](#) | [제 84 편](#) >>

제 83 편

결혼 제도

83:0.1 (922.1) 이 글은 결혼 제도가 옛날에 시작된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결혼은 집단의 절제 없는 난잡한 교배로부터, 여러 가지 변화와 적응을 거쳐서, 궁극에 부부의 짝짓기를 실현하게 한 결혼 기준이 나타나기까지 진보해 왔으며, 부부가 짝짓는 것은 가장 높은 사회 체제인 가정을 세우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다.

83:0.2 (922.2) 결혼은 여러 번 위험에 빠졌고, 결혼 관습은 지탱하기 위하여 재산과 종교에 몹시 의존해 왔다. 그러나 결혼과 그에 따라 생기는 가정을 언제까지나 보호하는 진짜 영향력은, 남자와 여자가, 가장 원시적 야만인이거나 또는 가장 교양 있는 필사자이거나, 분명히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단순하고 타고난 생물학적 사실이다.

83:0.3 (922.3) 성욕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동물보다 더 나은 무엇으로 만들도록 고임을 받았다. 자아를 돌보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성관계에는 자아를 부인(否認)하는 어떤 결과가 뒤따르며, 이타적 임무와 종족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가정 책임을 맡는 것을 보장한다. 여기서 성은 야만인을 문명인답게 만드는, 인정도 의심도 받지 않는 도구였으니, 왜냐하면 바로 이 성(性) 충동이 저절로, 어김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궁극에는 사랑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1. 사회 제도인 결혼

83:1.1 (922.4) 결혼은 남녀의 육체적 사실에서 생겨나는 많은 인간 관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사회 장치이다. 그러한 제도로써, 결혼은 두 방향에서 작용한다:

83:1.2 (922.5) 1. 개인의 성관계를 규제할 경우에.

83:1.3 (922.6) 2. 자손 · 상속 · 계승, 그리고 사회 질서를 규제할 때. 질서가 더 오래 된 최초의 기능이였다.

83:1.4 (922.7) 결혼에서 생겨나는 가족 자체가 재산 관습과 함께,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장치이다. 결혼을 안정시키는 다른 유력한 요소는 자부심 · 허영심 · 기사도 · 의무, 그리고 종교적 확신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결혼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어도, 결혼은 도저히 하늘에서 정한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가족은 뚜렷이 인간의 제도요, 진화로 발전한 것이다. 결혼은 사회 제도이지, 교회의 한 분과가 아니다. 종교가 결혼에 힘차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참말이지만, 종교만으로 결혼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83:1.5 (922.8) 원시의 결혼은 1차적으로 산업이었다. 현대에도 결혼은 흔히 사회나 사업의 일이다. **안드** 핏줄의 혼합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진보하는 문명의 관습의 결과로서, 천천히 결혼은 서로 나누고, 낭만적이며, 부모답고 시(詩) 같으며, 사랑이 넘치고 윤리가 있으며, 아니 이상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원시의 짝짓기에는 선택과

이른바 낭만적 사랑이 극히 적었다. 옛 시절에 남편과 아내는 별로 같이 있지 않았다. 자주 함께 먹지도 않았다. 그러나 옛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의 사랑은 성(性)의 매력과 강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로, 같이 살고 일하기 때문에,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2. 구혼과 약혼

83:2.1 (923.1) 원시의 결혼은 반드시 소년과 소녀의 부모가 계획하였다. 이 관습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절 사이에 과도기 단계는 결혼 중개인, 곧 전문 중매인이 차지했다. 이 중매인들은 처음에 이발사였고, 나중에는 사제였다. 최초에 결혼은 집단의 행사였고, 다음에는 가족의 문제였다. 요즘에야 결혼은 개인의 모험이 되었다.

83:2.2 (923.2) 매력이 아니라, 강제가 원시의 결혼에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옛 시절에 여자는 성에 냉담하지 않았고, 도덕 관습이 주입되어 오직 성적 열등감을 가졌다. 침공이 무역을 앞선 것처럼, 사로잡아 결혼하는 것이 계약 결혼에 앞섰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 부족의 늙은 남자들에게 정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로잡힐 때 모른 체하곤 했다. 그들은 다른 부족에서 온 제 또래의 남자 손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거짓 도망은 강제로 생포하는 것과 나중에 매력으로 구혼하는 사이에 과도기 단계였다.

83:2.3 (923.3) 초기 형태의 결혼식은 탈출하는 흉내, 일종의 도망 연습이었고, 이것은 한때 흔했던 관습이었다. 나중에는 생포를 흉내내는 것이 정상 결혼식의 일부가 되었다. 현대의 소녀가 “사로잡히는 데” 저항하는 체하는 것, 결혼에 대하여 말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 옛 관습의 유물이다. 문턱을 넘어 신부(新婦)를 메고 가는 것은

몇 가지 고대의 관습, 다른 것 중에도 아내 훔치는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83:2.4 (923.4) 여자에게는 결혼한 동안 자기 뜻대로 처신하는 완전한 자유가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았으나, 총명한 여자들은 언제나 머리를 영리하게 써서 이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남자가 보통 구혼을 주도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여자는 은밀히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공식으로 결혼을 개시하였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여자는 구혼과 결혼의 모든 단계에서 역할이 늘어났다.

83:2.5 (923.5) 결혼하기 전 구혼 기간에 사랑, 낭만, 개인 선택의 증가는 세계 종족들에게 **안드** 족속이 공헌한 것이다. 남녀 사이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었다. 진보하는 많은 민족이 효용과 소유권에 근거를 둔 옛날의 동기 대신에 얼마큼 이상이 된 성적 매력의 개념을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 일생의 짝을 고르는 데 성적 충동과 사랑의 느낌이 냉철한 계산을 비로소 대체하고 있다.

83:2.6 (923.6) 최초에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옛 민족들 사이에서 약혼 기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관습이었다. 최근에 종교가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에 성관계를 막는 금기를 만들었다.

3. 아내 사들이기와 지참금

83:3.1 (923.7) 옛날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믿지 않았다. 오래 가는 연합은 어떤 확실한 보증, 곧 재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아내 사는 값을,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릴 경우에 남편이 잃도록 정해진 벌금이나 보증금으로 여겼다. 신부(新婦) 사는 값을 일단 치르고 나서, 남편의 소인(燒印)을 그 여자에게 찍는 것을 많은

부족이 허락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아내를 사들인다. 사랑으로 얻은 아내, 곧 백인의 아내를 그들은 고양이에 비교하는데, 그 여자가 한 푼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83:3.2 (924.1) 신부(新婦) 구경은 신부가 아내로서 더 높은 값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대중에게 전시하기 위하여 딸을 잘 입히고 치장하는 계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처럼 팔리지는 않았다 — 후일의 부족들 사이에서 그런 아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아내를 사는 것이 반드시 냉혈한 돈 거래도 아니었다. 수고는 아내를 사는 데 현금과 같았다. 다른 면에서 바람직한 남편이 제 아내의 값을 치를 수 없으면, 여자의 아버지에게 양자(養子)가 될 수 있었고, 다음에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구하면서 욕심 많은 아버지가 달라는 값을 치를 수 없으면, 장로들이 흔히 그 아버지에게 바짝 압력을 넣곤 했는데, 이것은 그의 요구를 수정하게 만들곤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맞아 도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

83:3.3 (924.2)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아버지들은 딸을 파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었고, 그래서 신부 사는 값을 계속 받는 한편, 신부의 값과 대충 같은 값으로, 그 쌍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는 관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부 값 치르기가 나중에 중지되고 나서, 이 선물은 신부의 지참금이 되었다.

83:3.4 (924.3) 지참금의 관념은 신부가 독립한다는 인상을 전하려는 것, 아내가 노예이고 동반자가 재산이었던 시대가 지난 지 아주 오래되었음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남자는 지참금을 완전히 돌려주지 않고서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상호 보증금, 실제로는 결혼 보증금이 신부와 신랑, 양쪽의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이것은 한 쪽이 다른 쪽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로 되었다. 아내 사들이기에서 지참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아내를 샀다면,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속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내의 가족에 속했다.

4. 결혼식

83:4.1 (924.4) 결혼 예식은 결혼이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 아니라, 최초에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겼다. 짝짓기는 개인의 활동일 뿐 아니라 집단의 관심거리였다.

83:4.2 (924.5) 요술과 의식(儀式)과 예식이 옛날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둘러쌌고, 결혼은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여김에 따라서, 결혼 예식은 갈수록 더 허세 부리는 것이 되었다. 초기의 결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재산 권익에 한 요인이었고, 따라서 법적 예식이 필요했으며, 한편 나중에 생기는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능한 널리 홍보(弘報)할 것을 요구했다. 원시인은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결혼 예식을 구경해야 했다.

83:4.3 (924.6) 처음에 결혼식은 약혼 수준에 더 가까웠고, 다만 같이 살 뜻을 대중에게 통지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결혼식은 정식으로 같이 먹는 것이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는 부모가 단지 딸을 남편에게 데리고 갔다. 다른 경우에는 유일한 의식(儀式)이 선물을 정식으로 교환하는 것이었고, 그 뒤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내어주곤 했다. 여러 **레반트** 종족 사이에서는 온갖 형식을 생략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결혼은 성관계로 끝을 맺었다. 홍인은 더 정교한 결혼 축하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83:4.4 (924.7) 사람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고, 불임을 영이 장난치는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다산(多産)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또한 결혼을 어떤 요술이나 종교 의식과 관련시키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행복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결혼을 보장하려는 이 노력으로 많은 부적이 이용되었다.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출생 별을 확인하려고 점성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한때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을 잡아 바치는 것이 모든 결혼에 정규 행사였다.

83:4.5 (925.1) 사람들은 행운의 날을 찾았고, 목요일을 가장 유리하게 여겼다. 보름달에 올린 결혼식은 특별히 행운이라고 생각되었다. 새로 결혼한 자에게 곡식을 던지는 것이 근동에서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아이가 많을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된 요술 의식이었다. 어떤 동양 민족들은 이 목적에 쌀을 썼다.

83:4.6 (925.2) 불과 물은 귀신과 악령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언제나 생각되었다. 따라서 거룩한 물을 세례로 뿌리는 것만 아니라, 제단에 불을 지피고 촛불 켜는 것이 결혼식에 흔히 보였다. 오랫동안 가짜 결혼일을 정하고, 다음에 귀신과 영들을 길에서 쫓아내려고 갑자기 그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83:4.7 (925.3) 새로 결혼한 사람들을 놀리고 신혼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못된 장난을 하는 것은 모두 아득히 먼 시절의 유물이며, 그때는 귀신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귀신의 눈에 불쌍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다. 신부가 베일을 쓰는 것은, 귀신이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시샘하고 부러워할 귀신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못 보게 감추려고 신부를 가장(假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시절의 유물이다. 신부의 발은 예식이 있기 바로 전에, 결코 땅에 닿아서는 안 되었다. 20세기에도 기독교

풍습으로, 차량이 내리는 데서부터 교회의 제단까지 카펫을 까는 것이 아직도 관습이다.

83:4.8 (925.4) 가장 오래 된 결혼식 형태의 하나는 그 결합이 자식 많을 것을 보장하려고 사제가 결혼 침대에 복을 주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공식 결혼 의식이 생기기 오래 전에 행해졌다. 결혼 관습의 진화에서 이 기간에는 결혼식 손님들이 밤에 침실을 통해서 줄지어 지나가기를 기대하였고, 이것은 이처럼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보았다는 법적 입증이였다.

83:4.9 (925.5) 결혼 이전에 온갖 시험이 있었는데도, 어떤 결혼이 나쁘게 된다는 운(運)의 요인은, 원시의 남자에게 결혼의 실패에 대하여 보험의 보호를 추구하도록 이끌었고, 사제와 요술을 찾게 만들었다. 이 운동은 결국 현대의 교회 결혼식을 직접 낳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결혼은 대체로, 계약하는 부모들 — 나중에는 그 부부 — 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인정되었으며, 한편 교회와 국가가 지난 5백 년 동안에 관할권을 맡았고, 지금은 감히 결혼을 선언한다.

5. 여럿과 결혼하기

83:5.1 (925.6) 결혼의 초기 역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부족의 남자들에게 속했다. 나중에, 한 여자는 일시에 남편이 오직 하나 있었다. 일시에 한 남자와 사는 이 관습은 그 집단의 난교(亂交)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여자에게는 오직 한 남자가 허락되었어도, 그 여자의 남편은 그러한 일시적 관계를 마음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허술하게 규제된 이러한 관계는 무리를 지어 사는 것과

구별해서, 짝을 지어 사는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결혼이 발전하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보통 어머니에게 속했다.

83:5.2 (925.7) 짝짓기의 진화에서 다음 걸음은 집단 결혼이었다. 결혼의 이 공동체 단계는 가족 생활의 전개에서 사이에 끼어야 했는데, 이는 부부의 결합을 영구하게 하기에는 아직도 결혼 관습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와 자매들의 결혼이 이 집단에 속했다. 한 가족의 다섯 형제가 다른 가족의 다섯 자매와 결혼하곤 했다. 전 세계에서 더 허술한 형태의 공동체 결혼이 차츰 여러 종류의 집단 결혼으로 발전했다. 이 집단 결합은 대체로 토템 관습에 규제를 받았다. 가족 생활은 느리고 확실하게 발전했는데, 성 및 결혼의 규제가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바로 그 부족의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83:5.3 (926.1) 더 진보된 부족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복혼(複婚) — 일부 다처(一夫多妻)와 일처 다부(一妻多夫) — 관습 앞에서 집단 결혼은 차츰 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일처다부는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았고, 여왕이나 부유한 여인들에게 보통 국한되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관례로, 여러 형제와 한 아내가 사는, 집안 일이었다. 카스트와 경제적 제한은 때때로 여러 남자가 오직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런 때에도, 여자는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하고, 나머지는 합동 자손의 “아저씨”로서 적당히 참아 주곤 했다.

83:5.4 (926.2)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씨를 기르는” 목적으로 죽은 형제의 과부와 사귀도록 요구하는 **유대인**의 관습은 고대 세계의 절반이 넘는 데서 있던 관습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개인의 결합이기보다 가족의 일이었던 시절의 유물이었다.

83:5.5 (926.3) 일부다처 제도는 다른 시절에 네 종류의 아내를 인정했다:

83:5.6 (926.4) 1. 예식을 올린 아내, 곧 합법적 아내.

83:5.7 (926.5) 2. 사랑하고 허락된 아내.

83:5.8 (926.6) 3. 첩, 계약한 아내.

83:5.9 (926.7) 4. 노예 아내.

83:5.10 (926.8) 아내들이 모두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한 그러한 참 복혼은 아주 드물었다. 보통은 복혼의 경우에도 우두머리 아내, 신분 있는 동반자가 가정을 지배했다. 그 여자 혼자, 의식(儀式)으로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분이 있는 아내와 특별히 주선하지 않으면, 오직 사들이거나 지참금을 낸 그러한 배우자의 아이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83:5.11 (926.9) 신분이 있는 아내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옛날에 신분을 가진 아내는 보통 그렇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 곧 애인은 종족들이 어지간히 진보할 때까지, 특히 진화하는 부족들이 낮 족속과 **아담** 족속과 섞이기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83:5.12 (926.10) 금기의 아내 — 법적 지위를 가진 한 아내 — 는 첩을 두는 관습을 만들어 냈다. 이 관습 밑에서 한 남자는 오직 한 아내를 가져도 좋았지만, 그는 몇 명이라도 첩들과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첩 제도는 일부일처(一夫一妻)에 이르는 디딤돌이요, 버젓한 복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 **유대인** · **로마인** · **중국인**의 첩은 아주 흔히 아내의 몸종이었다. 나중에는, **유대인** 사이처럼, 남편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그 법적 아내를 어머니로 여기었다.

83:5.13 (926.11) 아이를 배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오래 된 금기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는 경향이 컸다. 원시의 여자들은 고된 일과 더불어 자주 임신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 늙었다. (지나치게 짐을 진 그런 아내들은, 아이로 몸이 무겁지 않을 때, 그들을 달마다 한 주 동안 고립시켰다는 사실 덕분에 겨우 그럭저럭 버티었다.) 그러한

아내는 흔히 아이를 배는 데 지쳤고, 둘째이자 더 젊은 아내, 아이 낳는 일과 집안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아내를 얻으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곤 했다. 따라서 새 아내를 더 나이 든 배우자가 보통 기쁘게 환호하였다. 성적 질투 수준에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83:5.14 (926.12) 아내들의 수는 오직 남자가 살림을 차려줄 능력에 따라서 제한되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아이들을 많이 바랐고, 아기 사망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이루는 데 한 명의 아내들이 필요했다. 이 여러 아내들 중에서 다수는 단순한 노동자요 노예 아내였다.

83:5.15 (927.1) 인간의 관습은 진화하지만, 아주 느리다. 하렘의^[85] 목적은 왕좌를 받들기 위해서 튼튼하고 수많은 혈족의 단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추장은 한때 그가 하렘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아내로 만족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하렘을 대번에 해고했다. 불평을 품은 아내들은 친정 집으로 돌아갔는데, 감정을 상한 친척들이 성이 나서 추장에게 몰려왔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를 없애 버렸다.

6. 참 일부일처제 — 부부의 결혼

83:6.1 (927.2) 일부일처제는 독점이다. 이것은 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는 자에게 좋지만,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은 자에게 생물학적 어려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와 아주 상관없이, 일부일처제는 확실히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

83:6.2 (927.3) 가장 일찍 있었던 일부일처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곤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는 문화적 · 사회적인 것이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진화 인간에게 부자연스럽다. 일부일처는

더 순수한 **노트** 족속과 **아담** 족속에게 온통 자연스러웠고, 모든 진보된 종족에게 크게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

83:6.3 (927.4) **갈대아** 부족들은 아내가 그 배우자에게 둘째 아내나 첩을 두지 않겠다고 결혼 전에 서약을 부과하는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일부일처 결혼을 선호했다. 조상 숭배는, 결혼을 신성한 일로 보는 기독교의 잘못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일부일처제를 촉진했다. 생활 수준의 향상조차도 한결같이 여러 아내를 가지는 것에 저항하여 작용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실 때가 되자, 문명화된 세계의 거의 전부가 이론적 일부일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수동적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진정한 부부 결혼의 관습에 길들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83:6.4 (927.5) 이상적 부부(夫婦) 결혼은 결국 독점 성관계와 비슷한 것이며, 이 일부일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요구 조건에 협조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새롭고 개량된 이 사회 질서에서 자리를 못 찾는 그런 불행한 남녀의 부럽지 않은 형편을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경쟁 무대에서 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나 현재의 도덕 관습이 지워준 다방면의 제한 때문일 수도 있다. 참으로, 일부일처제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적이지만, 혼자 사는 차가움 속에서 외톨이로 남은 자에게 불가피하게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

83:6.5 (927.6) 불행한 소수(小數)는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관습 밑에서 대다수가 진보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고생해야 했다. 그러나 유리하게 된 대다수는 그들보다 운이 나쁜 동료를 친절하게, 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들은 전진하는 사회의 진화에서 가장 높은

관습의 인가를 받고서 모든 생물학적 욕구를 채워 주는 이상적 성(性) 대상자의 계열에서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한 값을 치러야 한다.

83:6.6 (927.7) 일부일처는 언제나 인간의 성생활의 진화에서 이상적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다. 이 참된 부부 결혼이라는 이상에는 극기가 따르며, 따라서 단지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모든 인간 미덕의 절정, 곧 강한 자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아주 흔하다.

83:6.7 (927.8) 순전히 생물학적 진화와 구별해서, 일부일처는 사회 문명의 진보를 재는 척도이다. 일부일처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문명을 당장에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데 필수이다. 그것은 세련된 감정, 도덕적 인격의 향상, 영적 성장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은 복혼의 경우에 도무지 불가능하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경쟁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든 동안에, 여자는 결코 이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없다.

83:6.8 (928.1) 부부의 결혼은 밀접한 이해와 효과적 협동을 유리하게 만들고 조장하는데, 이것들은 부모의 행복, 아이의 복지,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선이다. 서투른 강요로 시작된 결혼은 자아의 교양, 자제, 자아 표현, 자아 존속을 낳는 훌륭한 제도로 차츰 진화하고 있다.

7. 혼인의 취소

83:7.1 (928.2) 결혼 관습이 초기에 진화할 때 결혼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허술한 연합이었고, 아이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있는 끈은 본능적이고, 도덕 관습의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작용했다.

83:7.2 (928.3) 원시 민족들 사이에서는 겨우 결혼의 약 절반이 만족스러운 것이 판명되었다. 이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고, 이를 언제나 아내의 탓으로 돌렸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영 세계에서 뱀이 된다고 믿었다. 더 원시적 관습 밑에서 남자 혼자의 선택으로 이혼(離婚)이 이루어졌고, 어떤 민족들 사이에서 이 기준은 20세기까지 지속해 왔다.

83:7.3 (928.4) 도덕 관습이 진화함에 따라서, 어떤 부족들은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을 개발했다. 보통의 결혼은 이혼을 허락했으며, 사제가 맺은 결혼은 이별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 사들이기와 아내의 지참금의 시작은, 결혼의 실패에 따른 재산 벌칙을 들여옴으로써 이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고대의 재산 요인이 현대의 많은 결합을 안정시킨다.

83:7.4 (928.5) 공동체에서 신분, 그리고 재산 특권이 주는 사회적 압력은 언제나 결혼 금기와 관습의 유지에 효력이 있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결혼은 꾸준히 진보해 왔고 현대의 세상에서 진보된 기초 위에서 있다. 개인의 선택 — 새로운 자유 — 를 무척 크게 생각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불만이 퍼짐으로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받는데도 그렇다. 진보된 종족들 사이에서 이러한 적응의 격변은 갑자기 사회의 진화가 가속되는 결과로서 나타나지만, 그보다 진보하지 못한 민족들 사이에서 결혼은 계속 번성하며, 더 오래 된 관습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개량된다.

83:7.5 (928.6) 결혼에 이상적이지만 극도의 개인주의적 사랑의 동기가 더 낡고 오랫동안 확립된 재산 동기를 새로 갑자기 대체한 것은 불가피하게 결혼 제도를 일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결혼하는

동기는 언제나 실제의 결혼 도덕을 훨씬 능가했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결혼에 대한 서양의 이상은, 자기 중심이고 겨우 얼마큼 통제된, 종족들의 성(性) 충동을 갑자기 꺾충 뛰어넘었다. 어느 사회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무리로 존재하는 것은 도덕 관습이 일시 붕괴하거나 과도기에 있음을 가리킨다.

83:7.6 (928.7) 결혼의 진짜 시험은, 긴 세월을 통해서 내내, 계속된 친밀성이었고, 이것은 모든 가족 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온갖 허영에 탐닉하고 자존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을 기대하도록 교육받고, 제멋대로 행하고 버릇없는 두 젊은이는 도저히 결혼하고 가정(家庭)을 일으키는 일 — 자기를 감추고, 절충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의 교양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생의 협동 관계 — 에 도저히 크게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

83:7.7 (929.1) 현대의 서양 민족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이혼 경향은 구혼(求婚)에 들어가는 고도의 상상력과 환상적 낭만에 대체로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여자의 개인적 자유가 커지고 경제적 자유가 늘어남으로 더욱 까다롭게 된다. 쉬운 이혼은, 그것이 자제의 부족이나 정상으로 인격자의 조정이 실패한 결과일 때, 아주 최근에, 또 아주 많은 개인적 괴로움과 종족의 고통을 겪은 결과로서 사람이 벗어났던 그 투박한 사회 단계로 곧장 돌아가도록 이끌 뿐이다.

83:7.8 (929.2) 그러나 사회가 어린아이와 젊은이를 적절히 교육하지 못하고, 사회 질서가 적당한 결혼 전 훈련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현명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어린 이상주의로 결혼에 진입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한, 그만큼 길게 이혼이 유행할 것이다. 사회 집단이 젊은이들에게 결혼 준비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한, 그 범위까지 이혼은

사회의 안전 밸브로서 작용해야 하며, 이것은 진화하는 도덕 관습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에, 더욱 나쁜 상황을 방지한다.

83:7.9 (929.3) 옛 사람들은 꼭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만큼 결혼을 진지하게 여긴 듯하다. 현대에 성급하고 성공하지 못한 많은 결혼은, 젊은 남녀가 짝짓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옛 관습보다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큰 모순은 사랑을 높이고 결혼을 이상으로 만들면서,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검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8. 결혼의 이상화

83:8.1 (929.4) 궁극에 가정으로 이끄는 결혼은 정말로 사람의 가장 고귀한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적이다. 결혼을 결코 성사(聖事)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 셋 족속 사제들은 결혼을 종교 의식(儀式)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에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짝짓기는 순전히 사회와 시민의 제도로써 계속되었다.

83:8.2 (929.5) 인간의 관계를 신의 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결혼과 가정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진화 세계에서 필사자의 물질적 기능이다.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진보하려고 인간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많은 영적 진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참말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결혼이 신성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영적 진보는 인간의 노력을 다른 방향에 진지하게 적용하는 결과로서 생긴다.

83:8.3 (929.6) 결혼은 **조절자**와 사람의 관계나, 또는 **그리스도 미가엘**과 인간 형제 사이의 친교와도 참으로 견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도 그러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결혼의 지위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83:8.4 (929.7) 결혼이 신의 행위로 인하여 맺어졌다고 어떤 집단의 필사자들이 상상한 것도 또한 유감스럽다. 그러한 믿음은, 계약한 당사자의 상황이나 소망과 상관없이, 결혼 상태가 취소될 수 없다는 개념으로 바로 이끈다. 그러나 결혼이 취소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신이 그러한 연합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일단 어떤 두 물건이나 사람을 함께 합쳐 놓았으면, 신의 뜻이 그들이 분리되라고 선포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합쳐진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인 결혼에 관해서 말하면, 성질과 기원이 순전히 인간적 결혼과 대조해서, 어느 결혼이 우주 감독자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연합인가 말하려고 누가 감히 판단을 내리겠는가?

83:8.5 (930.1) 그런데도, 높은 곳의 구체들에는 이상적 결혼이 있다. 각 지역 체계의 수도에는 **하나님의 물질 아들과 딸들이**, 결혼의 끈 속에서,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목적으로, 남녀가 연합하는, 최고에 이른 이상을 보여준다. 결국, 필사자의 이상적 결혼은 인간적으로 신성하다.

83:8.6 (930.2) 결혼은 언제나 현세의 이상적인 것에 대하여 사람이 가진 최고의 꿈이었고 아직도 그렇다. 비록 이 아름다운 꿈이 전부 이루어지는 일이 드물어도, 그 꿈은 영화로운 이상으로서 오래 가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진보하는 인류를 늘 유혹한다.

그러나 가족 생활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는 가혹한 요구 속에 침범
뛰어들기 전에, 젊은 남녀는 결혼의 현실에 관하여 더러 배워야
마땅하다. 젊은 마음에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혼 전의
실망으로 누그러져야 한다.

83:8.7 (930.3) 그러나 젊은이가 결혼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 그러한 꿈은 가족 생활의 미래 목표를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혼, 그리고 그 뒤에 가족 생활의
실용적이고 평범한 요건을 깨닫는 데 사람을 무디게 만들지 않는 한,
자극을 주며 유익하다.

83:8.8 (930.4) 결혼의 이상은 요즈음에 크게 진보했다. 어떤 민족들
사이에서 여자는 자기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
적어도 개념으로는, 가족은 자식을 기르는 조합, 그에 따라 성(性)의
정절이 뒤따르는 충성스러운 조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신판
(新版) 결혼조차, 모든 면에서 인격과 개성에게 서로 독점권을
주기까지, 주제넘게 극단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 결혼은 단지
개인주의 이상이 아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진화하는 사회적 협동
관계요, 당대의 도덕 관습 밑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며, 금기에 제약을
받고, 사회의 법과 규제에 따라서 집행된다.

83:8.9 (930.5) 여자의 자유가 갑자기 늘어나서 사회 조직에 너무 갑자기
밀어닥친 문제들 때문에 가정 제도가 지금 벅찬 시험을 겪고 있는데도,
20세기의 결혼은 지난 시대의 결혼과 견주어서 우뚝 서 있으며, 여자의
자유는 지난 세대의 도덕 관습이 느릿느릿 진화하는 가운데 여자에게
아주 오랫동안 주지 않았던 권리이다.

83:8.10 (930.6)

[유란시아에 주둔하는 세라핌의 우두머리가 발표했다.]

[85]: 83:5.15 하렘(harem)은 회교국의 후궁.
